MOL 자동차운반선 밸러스트 문제로 해난사고

선박내 균형이 무너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

지난 7월24일 알래스카 알루산제도 부근의 북태평양에서 해난 사고를 당한 일본선사인 MOL 소속 자동차운반선은 밸러스트 탱크의 문제로 인해 선박이 기울어져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외신에 의하면, MOL사의 Greg Beuerman 대변인은 "밸러스트 탱크의 문제로 인해 선박내 균형이 무너진 것이 사고 원인이며, 어떠한 충돌이나 파도에 의한 사고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밸러스트 탱크가 균형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히 조사하여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선박인 'Cougar Ace'호 선장도 미 해안경비대에 "선원들이 밸러스트 탱크의 수위를 조절하려 했을 때, 이미 선박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사고선박에 실려있던 4,813대 차량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Beuerman 대변인에 따르면, 선박 내의 방수 칸막이와 차량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체인이 자동차가 해수에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안경비대는 일주일 후 구조 견인선이 사고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Cougar Ace'호 주변에 연안 경비선을 배치하고 감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고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430톤의 연료유와 112톤의 디젤유가 공해상에 흘러 나오더라도 미 해안경비대는 'Cougar Ace'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OL이 운항중인 싱가포르선적 146K급 초대형원유탱커 Bright Artemis가 8월 14일 스리랑카와 수마트라섬 사이 해상에서 조난선박의 구조작업을 진행하다, 조난선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선체에 파공이 생기면서 적재중인 원유가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MOL에 따르면 Bright Artemis호는 8월14일 오전(현지시간) 인도양의 Great Nicobar 섬의 서방 약 290마일의 공해상에서 화재를 일으킨 싱가포르선적 1만톤급 화물선 Ama의 구조요청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이어 이날 13시(일본 시간 15시)경 조난자를 구조하기위해 사고선박에 접근한 VLCC는 표류하고 있던 Ama에 부딪히면서 우현선미부(해면상의 높이 약 1.7미터 부분)에 가로 약 5미터, 세로 약 1미터의 파공이 생겼고, 손상된 2개의 탱크로부터 원유 일부가 해상으로 유출됐다는 것이다.